



제10회 무주농업협동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제10회 무주농업협동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최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오영석 지부장, 임로조합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동정신을 발휘하는 물론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참가팀은 무주6팀, 안성2팀, 적상3팀, 부남2팀, 진도2팀, 미암2팀 17개팀 130여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교대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9일 인문학 소양 증진 교육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특강에서 김연옥 작가(독서습관연구소 모두북 대표)는 성인 독자를 위한 그림책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림책을 놀이와 독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특강은 인문학에서 삶의 해답을 찾고 미래세대의 교육에 어떤 본질과 철학이 중요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병춘 총장은 "인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에는 인문학적 감성이 필요할 것"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자본센터, 저소득가정 위한 행복꾸러미 지원

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지난 1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가정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2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의열매(단장 임미화) 20여명이 6개읍면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121세대에 겨울이불 1채씩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사전 사랑의열매봉사단, 주민센터, 통반장등 지역사회내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의 현황등을 파악하여 추가 지역사회 서비스연계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수진 개인전, 11월 5일까지 gallery숨서 전시

김수진 개인전이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gallery숨에서 30배 60배 100배 라는 전시명으로 열린다.

gallery숨의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작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려는 gallery숨의 의지다.

작가에 따르면 '30배 60배 100배'는 경합한 것과 경합하지 않은 것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그 연결 방법은 관 없는 물 이상의 화면이나 형태들을 병치, 시각적 새로움을 주거나 낯설게 하는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거친 호흡의 붓질과 그 붓질이 보여주는 표현주의적인 내적 발산이다. 이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은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김수진만의 독특한 이질적 공간을 창조해낸다.

30배 60배 100배 속 인물은 현실과 내적 갈등을 딛고 희미하거나 굳건하게 연결된 모습을 보인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자 자신과 싸우고 집중하며 밀어내기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거나,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함께 사는 세상, 사랑의 연탄 나눔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자유총연맹 진안지회, 용담면 회롱마을서 봉사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회장 배병선)와 진안군애향운동본부(사무국장 김민아)는 지난 18일 진안군 용담면 회롱마을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20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진안군애향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회원 등 20여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강 모씨의 집에서 600여장의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함께 사는 세상 사랑의 연탄나눔'의 일환으로 꾸준히 연탄 나눔을 행사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평년보다 겨울이 빨리 올 것으로 전망되어 예년보다 빨리 실시했다.

배병선 회장은 "이번 작은 나눔을 통해 우리 지역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우이웃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경찰, 경찰의 날 맞아 순직경찰 추모비 참배

고창경찰서(서장 고영완)는 19일 '제77회 경찰의 날'을 맞아 대간잡자전 중 순직한 경찰관의 영령을 기리고자 고창상하면 자룡리에 있는 경찰추모비를 찾아 참배를 하였다.

경찰추모비는 1975년 9월 11일 남파공작원 이용선이 구시포 앞 가파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복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회귀하던 중 전투경찰에게 발각되자 총격하여 3명 사망, 1명 부상을 입고 교전 끝에 사살되었고, 1977년 신화 2주기를 맞아 그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전우들이 뜻을 모아 전사한 전우의 명복을 빌고자 유찬등 27명이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현재 상하면 자룡리에 위치한 경찰추모비는 2009년 6월 현재 위치에 준공하였고, 2014. 12.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고창경찰서는 매년 현충일 경찰의 날 등 추모행사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추모비 주변 별초 작업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비·관리하고 있다.

이날 추모 참배 행사에 참석한 고영완 서장과 각 과장들은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분향 후 묵념을 하며 순직 경찰관들의 명복을 빌었다.

고영완 경찰서장은 "순직한 경찰관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고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병중 화백, '생명의 노래' 등 작품 남원시에 기증

남원시는 김병중 화백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다시 시에 대량의 작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대표작 △생명의 노래 △바보예수 △송화분부를 포함해 최신작 △풍죽과 화창기행 원작 등 150점이며, 김 화백은 2018년에 291점의 작품을 남원시에 무상으로 기증한 바 있고, 이번 기증까지 무려 441점을 남원시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과 관련, 최근 남원시와 김병중 화백은 기증 작품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으며, 남원시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하 미술관)은 각종 홍보와 운영을 목적으로 기증작품의 이미지 활용이 가능해져 앞으로 건립될 남원미술에듀센터의 미디어 전시 등에 이용될 예정이다.

또한 미술관에서 추진할 기증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과 판매도 가능해져 남원시의 관광상품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미술관 유치서 관장은 "김 화백의 기증으로 2022년 문화



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 명소 100선'에 미술관이 뽑힐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재 미술관 5주년 기념으로 전시되고 있는 △김병중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특별전도 기증품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동면, 고구마로 전하는 이웃사랑

남원시 산동면지역사회보조협의체(이하 협의체)(공동위원장 김경숙 고재운)는 지난 6월에 심은 고구마를 18일에 수확, 10kg 35상자를 관내 저소득 주민과 경로당 20개소에 전달했다.

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인 "사랑의 농산물 함께 나눔"은 관내 유휴농지 1,320㎡에서 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키우고 수확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며, 매년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감자를 수확하여 배부했다.

고재운 위원장은 "직접 키운 고구마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으며, 김경숙 산동면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농산물 재배·수확에 도움이 손길을 내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왕궁초, '환경 펠린 축제 한마당' 개최

익산 왕궁초등학교는 '환경 펠린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8일 왕궁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 왕궁초를 비롯해 왕궁남초, 왕북초 학생 100여 명과 지역주민 교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마을 협력형 어울림 학교를 운영하는 왕궁초등학교에서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원수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원수 작가는 직접 지구온난화 현상들을 다니며 기록한 사진과 영상으로 지구온난화의 현재에 설명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펠린과 북극곰이 겪고 있는 피해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강의했다. /장은성 기자

인사

전북도청

◇과장급 승진 내정 ▲체육정책과 체육진흥팀장 김정철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장 김홍표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조운정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임용시험 수험생 격려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임용시험 수험생 격려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이 19일 도서관을 찾아 2022년 초등교원 임용시험 수험생을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박 총장이 직접 수험생 약 100명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11월 12일 예정된 1차 임용시험 대비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줬다.

이 자리에서 박병춘 총장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체력 관리를 위해 적당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항상 응원하고 있는 학교와 가족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 산신영어도서관, 펜드로잉 동호회 작품 전시

완주군 산신영어도서관에서 문화예술 동호회 '그림일기'의 펜드로잉 작품을 전시한다.

19일 산신영어도서관은 이달 9일부터 2주간 '드로잉 꽃 피었네'를 주제로 11명의 회원 작품 총 28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산신영어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4월부터 문화와 그림을 연계해 읽고 그리고 공감하는 펜드로잉 동호회(그림일기)를 운영해 왔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단'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동호회 구성·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역량강화와 친목도모를 위해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1관단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전주시라이온스협, 취약세대 쾌적한 보금자리 제공

국제라이온스협회(총재 정화용)와 전주시 통합돌봄과(과장 장은경)가 19일 우아동 주민센터(동장 최명환)에 거주하는 저장 강반이 의심되는 통합돌봄대상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대상자는 60대 단독가구로 정신·심리적 문제 및 신체적 질병으로 장기간 집안 정리를 하지 못해 생활쓰레기를 방치해 일상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고장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등 위생 문제로 건강이 우려돼 냉장고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날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 10여 명과 우아 1동 동네복지팀, 시 통합돌봄 사례관리사 등은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쓰레기와 폐가구·가전 등을 정리해 쾌적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모았고 대상자의 신선한 음식 섭취를 위해 새 냉장고를 지원했다.

정화용 국제라이온스협회 총재는 "수년간 쌓아놓은 쓰레기 정리로 대상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냉장고 지원으로 신선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지역사회의 취약세대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은경 시 통합돌봄과 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소 봉사와 물품 후원에 흔쾌히 함께해주신 정화용 총재를 비롯한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분들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